

尹 정부 첫 국감...前 정부 책임론 vs 現 정부 견제론 격돌

24일까지...피감기관 783곳

국힘, 文정부 안보·탈원전 등 추궁
민주, 외교 논란·대통령실 등 공세
광주·전남 의원들 존재감 부각 별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결의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공세를 버리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도 칼을 갈고 있다.

국감 첫날인 4일 실시되는 국회 외교통외외교부 국감이 '제1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목살한 것을 들어 '외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박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한 기간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수를 바꿔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공방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야는 법사위 국감 중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를 주장하며 공세의 신호탄을 쏘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쑥이다. 이미 민주당은 임종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복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접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부위원회는 '몬스타 사태' 책임론, 산자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 여야 간의 경쟁 양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맹활약,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국을 뒤흔들 '한 방'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지지율 24% 최저치

한국갤럽...긍정평가 4%P 하락
리얼미터 긍정 31.2%·부정 6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달 순방 과정의 '비속어 논란'으로 하락세를 돌아섰다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28%→24%)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61%→65%)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4%를 기록한 것은 8월 첫째 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

이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 부정 평가는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34.6%→31.2%)하고,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62.2%→66%)한 수치다.

이번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8월 2주차(30.4%)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최저점이었던 8월 1주차의 29.3%에도 근접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8월 5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상승세(32.3%→32.6%→34.4%→34.6%)를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3%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을 비롯해 인천·경기(5.8%포인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 이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 부정 평가는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北 탄도탄 도발에 '괴물' 현무 미사일로 맞불...콜드 론치 적용

"세계 최대 탄두 중량" 신무기

국군의날 기념식서 첫 영상 공개

군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 핵에 맞설 전략 무기인 '괴물 미사일'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불을 놓은 셈이 됐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장에서 펼쳐진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군 첨단 무기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나왔다.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자·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타격 능력으로 증정·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KMPR 설명에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왔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응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최신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서 미사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다가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됐다. 콜드 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 오르게 한 뒤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수중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적용한다.

탄두 중량 추정치가 9t까지 제시된 적 있는 이

물 미사일은 구체 제원이나 개발 진도가 극비 사항이다.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병거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탄두 중량이 9t이라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 2.5t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고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무거운 1t 수준이다.

한국은 핵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응징·보복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인 셈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